

# 칼을 갈아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만 다윗에게는 숨어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 나타나는 그 잠재력은 평상시의 준비된 실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어진 삶에서 재능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 재능의 칼이 곧 생활의 칼이 된 것이며, 그런 능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힘과 결합되어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칼을 간 다윗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배워 봅시다.

**1과** 재능의 칼을 갈아라 - 삼상 16장 14~23절

**2과** 일상의 칼을 갈아라 - 삼상 17장 31~40절

**3과** 영적인 칼을 갈아라 - 삼상 17장 41~47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삼상 13:14)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름답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인물도 많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척박한 땅에서 맛당뜨리는 위험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 재능을 향상 시켰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군장비로 무장을 시켜 주고 칼까지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왕의 군복과 칼을 벗어던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벗어 버린 것입니다. 대신 평소에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 다섯 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익숙하지 아니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평상시 같고 닦은 재능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소 연마해온 재능이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적인 유혹과 재미에만 빠져서 게을리 살았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들에서 무섭고 외로울 때마다 찬양하고 묵상하며 맹수의 공격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돌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달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훈련, 좌절 속에서 자신을 연단시키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노력, 둘째 강한 의지, 셋째 실제 적용하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까지 있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에 재미를 붙이고 연마한다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래를 위해 칼을 연마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 평상시에도 재능의 칼을 연마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봅시다.